

“이별 후 남은 자의 ‘전디는 삶’ 그랬죠”

광일 신춘문에 출신 송은유 작가
첫 소설집 ‘빛과 결’ 펴내
결핍의 상처 안은 인물들 이야기

“어느 날 문득,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 밀려났다고 여겼던 기억의 몇 조각들 혹은 한 계절을 건너온 마음의 어린 결들이죠. 그것들은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오래 흔들리며 남아 있거든요. 짙은 물결 속에서 숨을 고르고 밀려오는 파도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송은유 소설가

소설가란 그런 존재다. 잊었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떠오를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작은 단서, 흔히 말하는 모티브는 예에서 받아들인다.

지난 201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먹을 잇다’로 등단한 송은유 작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바쁜 중에도 창작의 끈을 붙잡고 있다. 작품을 쓰지 않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분명 인물을 만들고, 플롯을 짜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풀이됐을 것이다. 소설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송 작가가 최근 첫 소설집 ‘빛과 결’ (문학들)을 펴냈다.

그는 전남대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터라 평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겪는 일상의 경험들이 글쓰기에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창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터였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송 작가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과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마음처럼 쓰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며 “그런 때에는 무작정 서사를 전개하기보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에 집중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첫 창작집 발간 소식을 밝혔다.

이번 작품집은 등단 이후 문예지에 발표해 온 작품들과 등단작을 묶은 것이다. “부담과 두려움도

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제 글을 다시 바라보고 배우는 계기로 삼고 싶다”는 말이 돌아왔다.

모두 7편의 소설들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이별 이후 남은 자들이 현재를 견디며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 방식으로 죽은 이를 기억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애도를 수행한다.

“제게 애도란 슬픔을 끝내거나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실의 감각을 지닌 채 일상을 견뎌 나가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소설에서는 빛과 색의 이미지를 통해 인물들의 내면과 삶의 여러 층위를 감각적으로 풀어내고자 했지요.”

‘은하’, ‘빛의 무게’, ‘먹을 잇다’, ‘다완’ 등의 작품이 그러한 소설이다. 인물들은 자신만의 삶의 ‘결’을 지닌 채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견뎌낸다.

“어떤 결은 단단하고 어떤 결은 쉽게 일어나는 게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그 위로 시간과 빛이 스쳐 서로 다른 무늬를 남긴다”며 송 작가는 말했다.

그러면서 “빛은 늘 밝기만 한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더 또렷해지기도 한다”며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의 무늬를 지닌 채 무정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작가가 처음 소설에 입문하게 된 것은 막연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작품 속 인물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서사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다가왔다.

대학에서 근무하다 보니 평소 그는 젊은 청춘들을 많이 보게 된다. 소설을 쓰는 데 나만의 영감을 얻거나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미래를 꿈꾸며 스펙을 쌓고 지식을 확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은 늘 든든하다”면서도 “이면에는 저마다 감당하는 고민과 고충의 무게도 있을 것 같아 선볼리 짐작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럼 만도 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스레 드는 의문은 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들이 과연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자신의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고 송 작가는 전했다.

첫 소설집을 계기로 앞으로 창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에게 소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단치 않은 그러면서도 고전적인 의미의 답이 돌아왔다.

“오래도록 잊지 않는 채 남아 있는 감정의 결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흠어진 기억 속에서 아직 해소되지 못한 조각들을 소환해 어떤 무늬를 이루는지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일이지요. 의식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때, 저는 빛과 결을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미뤄졌던 소설들을 쓸 예정이다. 장편 소설을 통해 사회 구조적 폭력과 소외 문제 등에 대해 다층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문순태 소설가는 “송은유 작가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밀도가 높고 내면의 미세한 결을 섬세하게 비춘다”며 “소설을 읽고 나면 인물들의 시선이 오래 남는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삶은 여전히 반짝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평했다.

이기호 소설가는 “이 소설집은 하나의 색채학이라 불려도 무방하다”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는 미세한 명암의 결을 더듬어 구분하는 색채학”이라고 평했다.

한편 고흥 출신의 송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금정악’ 국가무형유산 조창훈 명인 별세

순천 출신...일평생 국악에 헌신

순천 출신의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조창훈 명인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국가유산청은 “평생을 대금정악의 보전과 전승에 헌신한 조창훈 명인이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7일 전했다.

조창훈 보유자는 1940년(주민등록상 1941년) 순천시 주암면에서 태어났다. 1955년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입학해 고(故) 김성진 보유자에게 대금을 사사하며 본격적으로 대금정악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국악사양성소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에 입사해 가곡과 가사 등 정악 전반을 두루 익히며 음악적 기반을 다졌다.

1989년 대금정악 이수자가 된 그는 2009년 오랜 전승 활동과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후진 양성과 교육 활동에 힘쓰며 한평생 대금정악의 맥을 잇는 데 헌신했다.

1981년 광주시립국악원 강사를 시작으로 1987년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1998년에는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맡는 등 지역 국악계 발전에도 기여했다.



한편 대금정악은 대금으로 연주하는 정악(正樂)으로, 궁정이나 관아에서 연주되던 음악에서 비롯됐다. 합주 중심의 정악을 독주로 풀어낸 대금정악은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으로 전통음악으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광복·광석 씨 등이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예정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형불화 10년 조사 성과 실무 핸드북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자료집 발간...전국 불화 64점 조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최근 10년간 대형 불화를 조사한 성과를 정리한 ‘대형불화 과학적 조사 핸드북’ 자료집을 펴냈고 7일 밝혔다.

보물 ‘천은사 괘불탱’,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등 전국 각지의 불화 64점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국립기관과 각 지역의 문화유산 담당자, 보존처리 전문가, 대학·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 분석 방법 등을 풀어냈다.

불화에 쓰인 채색 재료 성분, 현미경 사진 등도 볼 수 있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대형불화 조사와 보존 연구의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



대형불화 조사 핸드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해 향후 문화유산 과학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문화유산 지식이음’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10대, 온라인 동영상 하루 3시간 넘게 시청”

언론재단, 미디어 이용 조사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길이가 짧은 숏폼 콘텐츠의 시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6~9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95.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시청시간은 일평균 200.6분, 약 3.3시간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다.

주로 시청한 콘텐츠는 게임(63.9%), 음악·공연·댄스(50.6%), 요리·먹방(40.6%) 등이고,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37.2%), 유튜브(35.8%), 유튜브 쇼츠(16.5%), 틱톡(8.0%), 네이버 클립(1.3%)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문예지·소록도 기록 보존 처리 완료

국립나주박물관, ‘송사리’·‘임사회회록’·‘예술문화’ 등

‘송사리’는 근대 목포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의 작품을 수록한 문예지다. 근대기 목포 문화의 다양한 면모와 활동 내역 등을 조명할 수 있다.

‘임사회회록’은 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록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소록도

의 자연과 역사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성태)은 ‘송사리’, ‘임사회회록’, ‘예술문화’ 등 지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박물관(관장 김성태)은 올해 목포자연사박물관

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문예지 ‘예술문화’와 목포 문예 동인지 ‘송사리’, 한센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사회회록’을 보존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박물관은 ‘소록도에서 희망에 살다’ 전에 보존처리 지원 소장품이 출품된다고 전했다.

나주박물관은 “향후에도 지역 문화기관의 사업 지원을 매개로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며 “보존처리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내 박물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